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2. 11.(목)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공유의 장 열렸다

- 우수농장 사례부터 품질 고급화 연구까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사료비 절감·생산성 향상 위한 현장 밀착 기술 공유
- 산·학·관 전문가 참여…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해법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티엠알(TMR)연구회와 함께 12월 11일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우수농장 사례 및 발효사료 제조기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우농가의 관심을 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소개하고 발효사료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우마이스터, 한우사료업계, 학계 등 국내 한우산업을 이끄는 전문가들과 우수 농가 등이 참석해 자가 사료 제조 확대 방안과 사양기술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전수 거점농장인 대전 석청농장 백석환 대표는 30년 기술 축적 경험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석청농장이 기술을 전수한 남원 맛다이농장 박현민 대표가 도입 초기 어려움과 성적 개선 사례를 공유해 공감을 이끌었다.

학계에서는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가 '미생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기술 개발 및 급여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실증 사례를 제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도한울 박사는 '근내지방도 향상을 위한 비타민 조절 기술'을 발표하며,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기술을 소개했다.

경북대학교 김은중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일본 동북대학교 노상건 교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백열창 연구관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적 접근 방향을 논의했다.

티엠알(TMR)연구회 이상석 회장(국립순천대 교수)은 "축산농가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핵심 현안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활성화로 한우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원장 직무대리는 "한우산업은 사료가격 상승과 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번에 논의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확대와 발효사료 제조 기술이 농가의 경영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술토론회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책임자	과 장	윤호백 (033-330-0601)
		담당자	연구관	백열창 (033-330-061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학술토론회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5. 12. 11.(목), 14:00~17:10 /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

○ 참석대상자: 한우농가, 농촌진흥공무원, 산업계, 대학 등

* 주관: 국립축산과학원·TMR 연구회

시 간	일 정	비 고
14:00~14:30 (30분)	○ 등록	사회: 백열창(국립축산과학원)
14:30~14:50 (20분)	○ 개회, 환영사 ○ 기념사진 촬영(발표자, 내빈 등)	환영사: 김진형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직무대리) 환영사: 이상석 (TMR 연구회장)
14:50~15:40 (50분)	○ 자가 TMR 우수 한우 농가사례 발표	백석환 대표(대전 석청농장) 박현민 대표(남원 맛디아농장)
15:40~16:10 (30분)	○ 미생물 활용 반추가축 발효사료 제조 기술 개발 및 급여효과 구명	이상석 교수(순천대학교)
16:10~16:20 (10분)	○ 티타임	
16:20~16:40 (20분)	○ 근내지방도 및 체중 향상을 위한 일본 흑모화우의 비타민 조절 기술	도한울 박사(국립축산과학원)
16:40~17:10 (30분)	○ 토론회(토론자: 발표자, 일본 동북대학교 노상건 교수, 국립축산과학원 백열창 연구관)	좌장: 김은중 교수(경북대)